

# 국민행복의 공간인문사회학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1. 머리말

행복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담론 가운데 하나다. 이는 우리 시대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일지 모른다. 그동안 행복은 ‘주관적’인 차원으로 여겨져 왔고 정책적인 접근과는 크게 상관없는 ‘우연적’ 요소로 치부되어 왔으나, 최근 행복에 대한 ‘사회적’ 내지 ‘정책적’ 관심도가 증대하고 있다. 행복의 원래 의미는 개인적 차원의 행운(good luck)이었다. 서양에서 행복의 의미를 행운에서 쾌락으로 바꾼 사람은 영국의 공리주의(功利主義) 사상가 벤담(J. Bentham)이었다. 그는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행복담론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벤담은 특히 보다 많은 사람의 보다 많은 행복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근대국가 헌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담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사르코지 보고서를 전후하여 행복의 객관적 혹은 사회적 조건들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는 연령이나 성별 같은 귀속적 요인도 있고 소득, 지위, 직업, 교육, 건강, 이념 같은 성취적 요소도 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 결코 빠지지 않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 사이의 대면과 교류 그리고 연대다. 만약 사람들 사이의 대면과 교류 및 연대가 행복의 주요 조건 가운데 하나라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현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은 행복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학자 홀(E. Hall)은 “천지개벽을 해도 인간 세상에는 공간을 배치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며 그 배치된 구도는 사람들의 공간구성 작용에 뿌리 깊고 끈질긴 영향을 미친다”(2002:32)고 하였다. 공간은 ‘숨겨진 차원’(hidden dimension)에 존재하는 ‘침묵의 언어’(silent language)로서 공간은 실제 언어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한다.

이 글은 공간 인문사회학의 관점에서 국민행복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행복에 대한 논의를 공간담론이나 공간계획의 맥락에 접목하고 착근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 2. 공간: 기계론과 장소론

인간이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간의 생산이다. 공간은 텅 빈 허공이나 좌표계가 아니라 가치 창조나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발견, 변형, 조직 등의 과

정을 통해 생산되는 그 무엇이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르페브르, 2011:77). 이 때 공간은 생산물, 곧 사물의 형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소유와 지배에 관련하여 일련의 사회적 관계를 내포한다(르페브르, 2011:148-151). 생산된 공간은 생산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재현된다. 이른바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이란 계획가나 기술 관료들에 의해 개념화된 공간으로서, 주어진 사회에서 지배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와 같은 지배적 공간 속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데, 이를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이라 부른다(르페브르, 2011:86-88). 드 세르토(M. de Certeau)가 말하는 ‘개념도시’(concept de ville)도 공간의 재현과 유사한 의미다. 푸코(M. Foucault, 1994)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특징은 미시적이라는 것이며, 미시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은 공간의 배치와 배열을 매우 중요하게 포함한다. 푸코가 볼 때 공간은 곧 규율이며, 중요한 것은 공간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의 권력효과다. 그렇다면 공간은 환경이라기보다 기계다. 인간 활동의 동선과 시선을 절단하고 채취한다는 점에서도 공간은 기계며, 사람의 신체를 가공하고 변형시킨다는 점에서도 공간은 기계다(이진경, 2000).

둘째, 공간의 장소화다. 장소(place)란 공간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정서적 관계다. 공간이 움직임과 개방, 자유, 그리고 위협을 의미한다면 장소는 특정 공간에 대해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인식처이자 안전과 애정을 느끼는 정적인 중심이다(투안, 1995:7, 19-20, 29). 노베르그 슐츠(C. Norberg-Schulz, 1985)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

을 위한 실존적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공간의 성질, 그리고 존재와 공간의 관계를 인식해 나간다. 인간은 공간 대신 장소를 필요로 하는 주체적 내지 실존적 존재다.

자본주의 체제는 공간의 생산과정에서 전근대 사회의 절대공간(absolute space)을 추상공간(abstract space)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 결과 공간의 탈장소화, 곧, 동질화, 계량화, 상품화, 파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르페브르, 2011:339-423). 따라서 공간의 장소성 내지 재장소화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간에 비해 장소는 기억의 문제이고 일상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다.

### 3. 공간과 국민행복

#### 1) 주거공간

주거는 인간이 정체성을 갖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며,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특정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얻고 전체 환경을 의미체로 경험하는 일이다(Norberg-Schulz, 1991:14, 22). 집은 “오래된 가옥이며 오래된 이웃이며, 고향이고 조국”이다(투안, 1995:15). 근대사회는 집의 실존적인 의미가 약화되는 과정이었다.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주택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때부터 주택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주거 문제를 국가·사회적 이슈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근대주택의 유형이 바로 아파트이다. 급박한 주택수요에 신속히 대

1) 공간의 재현에 따른 공간적 실천을 거부하는 공간은 ‘저항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인데, 이 세 가지가 현실에서 공간의 변증법을 이룬다.

음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공급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바슐라르는 포개진 상자, 곧 아파트는 결코 집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파리에는 집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바슐라르, 2003:107). 바슐라르가 주장한 것은 집의 진정한 가치란 내부공간이 갖고 있는 “내밀한 가치”에 있다는 입장이었다(바슐라르, 2003:75).

바슐라르에 의하면 집이 내밀한 가치를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첫째, 집은 지붕-1층-지하로 구성되는 수직적 형태를 띠어야 한다(바슐라르, 2003:198). 둘째, 집은 “소박함의 중심”으로서 평범한 것, 낡은 것들, 오래된 것들의 응집체이어야 한다(바슐라르, 2003:111). 셋째는 살림살이의 중요성이다. 그는 ‘살림살이의 현상학’을 언급하면서 청소를 포함한 주부들의 가사활동이 “집을 살아있게 하고”, “잠들어 있는 가구를 깨어나게 한다”고 말했다(바슐라르, 2003:161-163).

볼노 역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좋은 집이 아니라고 본다. 우선 “담과 지붕, 울타리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집”이다(볼노, 2011:168-9). 여기예다가 약간 격리된 공간, 적당한 크기의 공간, 온기, 무질서와 과잉 질서의 사이 어디쯤, 취향과 애정을 반영한 가구, 살림살이에 대한 거주자의 동화, 가족의 동거 등이 좋은 집을 만든다(볼노, 2011:195-199). 이들이 말하는 집의 참된 가치는 공히 일상성에 있다. 주택은 “나이 든 이모나 고모”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골드버그, 2011:64)이다.

## 2) 도시공간

도시의 문화적 힘은 기억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창조와 기억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미국의 시인 에머슨(R. Emerson)은 “도시는 기억으로 살아가

다”(The city lives by remembering)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도시는 근대 서구문명의 기반이었다. 역사학자 브로델(F. Braudel)은 서유럽에서 “자본주의와 도시는 근저에서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는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의 문을 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브로델, 1995).

그 이후 도시는 부르주아 계급지배와 근대국가 통치의 핵심적 거점으로 부상했으며, 도시화가 인류 문명의 대세가 되었다. 인간의 발명품으로서의 도시는 항상 계획과 설계, 관리, 재생 등의 대상이었다. 근대적 도시계획은 권력과 자본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근대국가의 핵심적 특징은 통치의 대상이 되는 사회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가독성(legibility)의 획기적 증대다. 이른바 ‘국가처럼 읽기’(seeing like a state) 논리에 따라 도시공간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하학적 논리에 따라 지배 권력이 읽기 편한 방식으로 계획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스콧, 2010:99-105).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근대 도시계획이 발전하면서 기술공학 중심의 물리적 도시담론이 크게 득세했다. 물론 근대적 도시계획은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심미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진보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가도 적지 않았다. 많은 인문사회학자들이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다.

도시의 기억상실과 개성실종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존재 이유인 문화역량을 앗아간다. 한 걸음 더 자본과 권력 중심의 도시계획은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의 전망까지 위협한다. 신자유주의 국가 통치는 포섭과 배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인구를 관리하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개인의 신체와 정신 속으로 ‘육화된 신자유주의’는 도시공동체의 가능성을 더욱 제약하고 있다(김홍중, 2009).

### 3) 이동공간

인간은 집을 짓는 존재, 도시를 건설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길을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길은 단순한 통과공간이 아니다. 무엇보다 “길은 공간을 열어준다”(볼노, 2011:127). 인류문명의 발전이 도시에 기반하고 있다면 도시의 발전은 교통에 절대적인 빛을 지고 있다. 그런데 도로는 일반적인 경우 공공재에 해당하는 건조환경이다. 하지만 도로는 정치적으로나 계급적으로 결코 중립이 아니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는 지배가 미치고 있는 공간에 흠을 파는 것” 곧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다(들뢰즈·가타리, 2003:741). 말하자면 국가는 본질적으로 정해진 공간에서만 이동하도록 하고, 방향을 조절하고, 속도를 통제하는 “도로관리자, 방향전환기 또는 인터체인지”이다(들뢰즈·가타리, 2003:742).

국가는 왜 도로를 만드는가? 첫째는 도로가 지배계급의 자본축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공간정복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원천 가운데 하나다(Giddens, 1990; 켄, 2004 등 볼 것). 국가가 도로를 닦는 또 다른 이유는 군사적이고 지정학적인 것이다. 근대 이후 도로는 광역화 및 속도화의 길을 걸었다. 그 과정을 주도한 것은 기하학적 사고에 바탕한 교통공학과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한 교통경제학이었다. 문제는 기계로서의 이동공간이 장소로서의 이동공간을 소멸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길은 기계가 아닌 장소로서의 가치가 크다. 동양사회의 도로는 다분히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 4. 공간담론 및 공간계획의 지식사회학

국민행복은 공간의 기계론적 측면보다 공간의 장소론적 차원에 보다 더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공간담론과 공간계획이 후자 보다는 전자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왜 계속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가? 이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할 차례다.

첫째, 한국사회에는 공간계획에 대해 일종의 숭배감이나 강박증이 존재하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토건 중심의 개발연대를 오랫동안 거쳤으며, 그것이 근대화의 성공으로 자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정부주도의 물리적 공간계획에 대한 일종의 자기확신 내지 자기최면이 작동한다. 계획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생각하는 풍조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행복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간에 관련된 최근 정부의 두 가지 사업은 이런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전국을 자동차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이른바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국 모든 도시를 IT 인프라로 지능화 시키고자 하는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건설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 유일의 나라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전국의 모든 도시가 그렇게 획일화될 필요까지는 없다. 특히 U-City 담론에 담긴 핵심 개념, 예컨대 정보, 질서, 분할, 정확성, 표준화, 예측성, 감시, 기록, 처벌, 규율 등은 19세기에 푸코가 우려했던 ‘감옥도시’의 21세기적 전조(前兆)로 읽히기도 한다(전상인, 2012a).

둘째, 공간계획에 대한 아카데미의 리더십 부재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이나 학회, 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정책과 공공계획의 주된 수행자들은 ‘후방지원형’ 내지 ‘하위종속형’ 연구자의 역할로 축소되어 있다(이상대, 2008).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도시담론 혹은 도시지식은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어서 도시에 대한 지식체계가 정부 통치행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지식기반 장치일 경우가 많다(임동근, 2010:121, 127).

셋째, 한국의 공간담론이나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무나 현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압도하는 현상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건축 관련 학회는 학문공동체라기보다 프로젝트를 위한 이익집단에 가깝다(이상현, 2013:68).

이와 더불어 관련 학계나 학회는 이론적 배경이나 맥락 부재에 빠져있다. 공간계획 관련 학술연구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나친 계량분석 중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이상대, 2008).

끝으로 공간이나 계획 담론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적 마인드의 입지가 너무나 좁고 부실한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공학’이나 도시‘공학’이 여전히 해당 분야의 주류다. 그러다 보니 ‘인문예술학’으로서의 공간계획이나 공간설계가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어렵다.

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공간에 대한 인문사회학과 기술공학의 실질적인 협업과 융합을 위해 이 글은 공간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사유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개괄해 본 것이다.

## 5. 마무리

공간은 국민행복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 글은 ‘기계’로서의 공간보다는 ‘장소’로서의 공간이 국민행복에 더 가깝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계로서의 공간이 대개 권력과 자본의 공간이고 기술과 공학의 공간이라면, 장소로서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기억과 관계의 공간이고 인문과 예술의 공간이다. 주거공간이나 도시공간, 그리고 이동공간에서 공히 근대적 이행과정에서 기계로서의 공간이 부상했고, 그것이 나름 사회발전에 기여한 대목 또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계적 공간담론과 공간계획이 일반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늘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행복에 필요한 새로운 시대정신은 장소로서의 공간을 복원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이럴 때 공간에 대한 인문사회학의 가치는 그 중요성을 아

## 〈참고문헌〉

- 김홍중, 2009.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14
- 이상대, 2008. “공공계획의 위기와 과제: 연구분야”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술대회 <한국의 국토·도시·환경과 공공계획> 2008.10.10
- 이상헌, 2013. 대한민국에 건축은 없다, 효형출판
- 이진경, 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 임동근, 2010. “한국의 도시지식체계의 형성과정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 인천학연구 12
- 전상인, 2012. “보이지 않는 도시를 찾아서,” 이인식 외,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고즈윈.
- 골드버그, 폴, 윤길순 (옮김), 2011. 건축은 왜 중요한가, 미메시스.
- 글레이저, 에드워드, 이진원 (옮김), 2011. 도시의 승리, 해냄.
- 들뤼즈, 질 · 가타리, 펠리스, 김재인 (옮김), 2003.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 르페브르, 앙리, 양영란 (옮김),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 바슐라르, 가스통, 박광수 (옮김), 2003. 공간의 시학, 동문선.
- 볼노, 오토, 이기숙 (옮김), 2011.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 브로델, 페르낭, 주경철 (옮김), 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2: 일상생활의 구조 下, 까치글방.
- 슐츠, 노베르그, 김광현 (옮김), 1985. 실존, 공간, 건축, 태림문화사.
- 슐츠, 노베르그, 이재훈 (옮김), 1991. 거주와 개념, 태림.
- 스콧, 제임스, 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에코리브르.
- 투안, 이-푸, 구동희·심승희 (옮김), 1995. 공간과 장소, 대운.
- 홀, 에드워드, 최효선 (옮김), 2002. 숨겨진 차원: 공간의 인류학, 한길사.
- Aristotle, T. A. Sinclair (trans.), 1981. *The Politics*, Penguin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xford: Polity Press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Oxford: Polity Press